

제3회 송건호언론상 자료집

시상식

일시: 2004년 12월 3일 (금) 오후 6:30

장소: 서울 한국언론회관 19층 기자회견장

주최: 청암언론문화재단 한겨레신문사

제3회 송건호언론상

수상자: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송건호언론상> 심사위원회는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을 제3회 송건호언론상 수상자로 선정합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민주사회에서 시민들이 언론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인식 아래 언론민주화와 민족의 공동체적 삶의 가치 구현에 앞장 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언론운동 단체입니다. 민언련은 1984년 해직언론인과 진보적 출판인들이 주축이 된 민주언론운동협의회로 출발하였고 1998년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으로 거듭났습니다.

민언련은 1986년 9월 기관지 <말>을 통해 당시 언론통제의 도구였던 <보도지침>을 폭로하는 등 언론자유 신장에 기여를 했습니다. 나아가 건전한 언론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여 언론의 중요성과 더불어 수용자주권 의식을 확산시키는데 한 몫을 하고 있으며, 언론의 올바른 위상을 세우기 위하여 언론감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송건호언론상> 심사위원회는 언론민주화·언론자유신장·언론문화 발달을 위해 노력하는 민언련의 활동이 고 송건호 선생께서 남기신 뜻에 맞다고 판단하여 이 상의 수여를 결정합니다.

심사위원회는 이 상이 금년 12월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민언련의 활동가와 회원들의 기쁨과 보람을 더해줄 수 있기를 바라며, 공동체 구성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을 때 언론이 바른 길로 간다는 사실을 일깨울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04년 11월 17일

송건호언론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이상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위 원 정경희 언론인
위 원 김태진 도서출판 다섯수레 대표
위 원 방정배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위 원 이창근 한국언론학회 회장
위 원 김재범 한국방송학회 회장
위 원 김주언 언론재단 연구이사

수상자 소개 -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소개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은 민주사회의 주권자인 시민들이 언론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인식아래 회원상호간의 단결 및 상호협력을 통해 언론민주화와 민족의 공동체적 삶의 가치 구현에 앞장서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언련은 해직언론인과 진보적 출판인이 1984년 12월 19일 창립한 언론운동전문단체이다. 지난 98년 1월 6일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고, 3월 27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으로 개칭하였다.

대항매체가 전무하던 시절, 기관지 '말'을 통해 사회문제를 고발하고, 제도언론으로부터 외면당한 민중의 진실을 알렸다. 87년 6월항쟁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한겨레신문' 창간에 기여하였다.

91년 11월 '언론학교' 개설하고 92년 2월에는 '대학언론강좌' 개설하였다. 98년 '비디오 저널리스트(VJ)과정', '오연호의 기자만들기', '다큐멘터리 사진강좌', '기자학교 (한겨레문화센터와 공동)' 개설 등을 개설하는 등 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여 왔다. 2000년 인터넷저널리즘강좌 개설, 신문 방송모니터 등 수용자의 적극적인 언론감시활동에 주력하여 시민언론운동의 새 지평을 열었다.

현재 모니터위원회 신문방송분과를 비롯 영화분과, 사진분과, 노래분과, VJ분과, 인터넷분과, 참언론산악회, 언론개혁실천단 등 다양한 회원모임이 있다.

축 사 - 강만길 청암언론문화재단 이사장

청암선생의 정신을 그리워 하며

우선 오늘의 기쁨을 함께 하시고자 제3회 <송건호언론상> 시상식을 찾아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청암 선생의 자취를 그리워 하는 분들을 이 자리에서 보니 선생의 빈 자리가 더욱 커 보입니다.

청암 선생께서는 평생 자료를 수집하시고 공부하신 지극히 학구적인 언론인이셨습니다. 주머니는 가벼워도 헌책방 문턱이 닳도록 드나드셨고, 당신 스스로 무취미가 취미라고 하시며 독서에 열중하셨습니다. 변변한 집필 공간이 없어서 밥상머리에 앉아 펜을 굳게 눌러 가며 쓴 글들은 오랜 고민과 사색 끝에 나온 선생의 분신입니다.

선생께서는 '나는 글을 쓸 때 마다 항상 30년 40년 후에 과연 이 글이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고, 먼 훗날에도 욕을 먹지 않는 글을 쓰겠다고 다짐하곤 한다. 크게는 이 민족을 위해서 작게는 내 자식들을 위해서 어찌 더러운 이름을 남길 수 있으랴' 하고 말씀 하셨습니다. 다양한 매체 속에 언론인의 수는 늘고 말과 글은 넘치지만 요즘 세상에 이런 정신으로 글을 쓰는 언론인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시대는 변했다고 하지만 그 곧은 정신은 면면히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선생께서는 권력의 탄압에도 시달리셨지만 누구보다도 많은 회유를 받으신 분입니다. 재물과 권력의 유혹 앞에서도 선생은 이를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어느 날 고 박정희 대통령이 '송선생, 내가 무언가 한 가지 꼭 도와주고 싶은데 원하는게 뭐냐'고 묻자 '지방의 공장시설을 한 번 둘러 보고 싶다'고 대답했다는 일화는 선생께서 얼마나 사심이 없었는지를 말해 줍니다.

오늘 제3회 <송건호언론상>을 수상하는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은 우리사회에서 언론이 올바른 위상을 찾고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한 단체입니다. 언론이 바로 서야 세상이 바로 설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그 시작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민언련의 전신인 민주언론운동협의회는 초기부터 호된 시련을 겪어 조직을 유지하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언론 운동의 선각자들은 자신을 희생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언론자유신장과 언론민주화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민언련이 지워지지 않을 큰 발자

취를 남겼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언론운동의 대표적인 단체로 우뚝 선 현재가 있기까지는 활동가들의 헌신, 변함 없는 회원들의 지지, 자원봉사자들의 인내가 든든한 버팀목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민언련이 수상하는 것을 축하 드리며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보다 성숙한 자세로 언론운동을 벌여 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민주언론운동협의회를 이끄셨던 청암선생님께서도 당신의 뜻을 이어 나가는 민언련을 자랑스러워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 선생의 참언론 정신을 되새기며 그 뜻이 언론계로 널리 퍼지도록 노력합시다. 선생의 정신은 과거가 아닌 영원한 현재 속에서 시대의 나침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저희 재단과 공동으로 이 상을 주최한 한겨레신문사 고희범 대표이사 그리고 청암언론문화재단을 변함없이 지원해 주시는 유가족 여러분의 후의에 깊은 감사의 정을 표시합니다.

멀리 선생의 고향인 충북 옥천에서 송건호기념사업회를 이끌고 계시는 관계자들에게도 재단을 대표하여 감사 드립니다.

상의 심사를 흔쾌히 허락하신 심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축 사 - 고희범 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

청암 선생님의 뜻을 되새기며

오늘 청암 송건호 선생께서 남기신 고귀한 뜻을 되새기는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볼 때 많은 분들이 이땅의 언론자유를 위하여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암울했던 시기 그분들의 온갖 희생을 무릅쓴 저항의 결과 오늘날 언론이 더할 수 없는 자유를 누리며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게 됐음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언론의 정도를 추구했던 고난의 행렬에는 항상 청암 선생께서 함께 계셨고 고비고비마다 보이신 그 용기는 좌절에 빠지기 쉬웠던 후배들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선생께서는 언론이 정권의 통제 속에 침묵하던 암울한 시절 '민주언론운동협의회'를 결성하시고 의장을 맡으셨습니다. 그 길이 가시밭길임을 알면서도 주저하지 않으셨고 닦쳐오던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선생님을 생각할 때마다 침묵 속에서도 향기 그윽한 매화를 연상하는 것도 이런 까닭입니다.

자유언론운동의 선구자로서 선생께서 보여 주신 삶에 비취 볼 때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을 제3회 <송건호언론상> 수상자로 선정한 것은 훌륭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이 상을 드립니다.

지난 20년에 걸친 민언련의 활동은 우리사회에 몇 개의 큰 발자국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민언련은 언론자유 신장에 앞장 섰습니다. 언론통제의 실상을 폭로하고 우리사회의 금기에 도전하는 등 언론자유를 넓혀 왔습니다. 언론자유를 말할 때 우리는 민언련의 공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민언련은 언론이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려하며 이를 견제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언론의 감시자로서, 그리고 충고자로서 언론이 스스로를 뒤돌아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이밖에 시민이 언론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자각 아래 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여 언론수용자의 비판의식을 일깨웠고 수용자 주권 의식을 높여 온 것도 폄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의 전신이었던 '민주언론운동협의회'를 청암선생

께서 이끄셨다는 남다른 인연을 생각할 때 오늘의 수상은 더더욱 뜻 깊습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언론과 한국사회에 대한 애정과 헌신으로 어언 20주년을 맞이하는 민언련의 상근자와 든든한 지원자인 회원들께도 이 상이 큰 위로와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언론의 동반자이자 감시자로서 본래의 뜻에 한치의 모자람도 없이 황성한 활동상을 보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올해로서 3회를 맞는 <송건호언론상>이 수상자들에게 더 할 수 없는 큰 영광이 되는 상으로 언론계에 자리 잡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강만길 재단 이사장님과 '송건호 언론상' 심사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청암 선생님의 뜻을 널리 알리기 위해 애쓰시는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자리를 빛내 주신 내외빈께도 감사 드립니다.

축 사 - 동아투위 위원장 문영희

국민은 민언련에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3회 송건호 언론상>을 수상하신 민언련 이명순 이사장과 최민희 사무총장 등 민언련 관계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건호언론상>은 청암 송건호선생의 참언론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압니다. 이 상은 동아투위가 수여하고 있는 <안종필 자유언론상>과 함께 한국 언론상 가운데서 가장 권위 있고 영광스러운 상으로 평가를 받고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청암선생님은 저희 동아투위는 물론 저 개인과도 너무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암선생께서는 지난 1975년 3월 15일 저희 동아일보의 젊은 기자들이 '자유언론 수호'를 다짐하며 편집국과 인쇄공장에서 농성중일 때 사장실을 방문하여 '해고된 기자들을 복직시키는 길만이 오늘의 사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사장을 설득했으나 거절당하자 사표를 던지셨습니다. 동아일보 역사상 사장에게 자유언론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맞서다가 회사를 스스로 떠난 편집국장은 청암선생님이 처음이셨습니다. 그 분은 평생 언론인의 정도를 지키신 우리들의 사표이셨습니다.

청암선생께서 역촌동에 거주하실 때 저는 근처에 살았습니다. 선생님은 가끔 영광스럽게도 편집국장의 전용차에 저를 태워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꼭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기자들의 불만이 많죠? 제가 편집국장으로 있는 한 정보부가 간섭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힘을 모아서 언론자유를 지켜나갑시다'라는 말씀과 함께 '술만 마시지 말고 공부하라'며 기자의 자질론을 강조하셨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선생께서는 1980년 신군부에 의해서 '내란죄' 혐의로 보안사에 끌려가 많은 고초를 겪으셨음에도 당신이 당한 고초를 입 밖에 내기를 꺼려하셨습니다. 그 분은 그렇게 강직한 분이셨습니다.

청암선생께서는 1984년 말 사랑하던 후배들인 동아투위, 조선투위 그리고 80년 해직언론인들을 규합하여 오늘의 민언련을 창설하십니다. 선생께서는 이후 월간 '말'지와 '한겨레신문'의 창간을 주도하십니다. 그 분이 남기신 그 많은 업적들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죄다

말씀 드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 분의 유족들이 출연하여 제정한 <송건호언론상>이 제 3회 수상자로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에 돌아간 것은 어쩌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민언련'은 창설 이후 너무도 많은 활동을 펴온 단체입니다. 특히 언론운동시민단체들의 중심에 서서 언론관련 개혁법안을 성안하여 국회에 입법청원한 공적은 한국언론사에 새로운 지평을 연 쾌거라 평가됩니다. 지금 언론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언론권력을 비판하고 맞서 싸우는 단체도 바로 민언련입니다. 민언련의 감시와 비판이 없었다면 언론은 정도에서 많이 벗어 났을 것입니다. 저와 동아투위 동지들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민언련의 활동을 지지하고 성원할 것입니다. 민언련 또한 언론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21세기의 국민여망인 언론개혁운동의 중심축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상 소감 - 최민희 사무총장

송회장님처럼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민언련이 처음 상을 받습니다. '보도지침'을 폭로한 이후 신홍범 실행위원, 김태홍 사무국장, 김주연 기자 등이 가톨릭 자유언론상을 받은 것을 민언련활동에 대한 상이라고 보면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 민언련 수상 소식을 전해들은 지인들이 한결같이 말하더군요. "지지리도 상복도 없는 민언련이 첫 상을 받으니 이상하다"구요.

사실 저희도 어리둥절합니다. 그러나 그 상이 송건호 초대회장의 정신을 기리는 '청암 언론문화재단'에서 주는 상이라는 점이 무엇보다 저희를 뿌듯하게 합니다. 한편으로는 송건호선생님 정신을 잘 기려서 주는 상이라면 민언련회원들에게 상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난 1985년 초 처음으로 송건호회장을 뵈었습니다. 첫 느낌은 그토록 유명한 분이 이렇게 소박할 수 있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시고 일하면서 큰 틀의 민주화운동보다는 언론운동분야의 '전문적인 몫'을 강조하시는 송회장을 철없이 '답답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운동권 마당발 같았던 다른 재야 어르신들이 부러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그 시절을 돌아보면 '하루강아지 철모르던 시절'의 치기였다는 생각에 얼굴이 붉어집니다. 송회장님은 차고 넘치심 없이 자기 앞에 놓인 몫을 피하지 않고 충실하게 실천하신 분이었습니다. 세간의 입질에 연연하시기 보다는 스스로의 내면적 결단에 따라 할 일을 하신 분입니다. 돌아보면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민언련도 지난 20년동안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언론운동 외길에 전념해왔다는 것만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민언련은 늘 작은 단체였습니다. '말'지 창간, '보도지침' 폭로, '한겨레신문' 창간 주도, 안티조선운동 주도, 신문시장 정상화 및 언론개혁운동 주도 등등 내세울 일도 있었지만 지난 20년을 돌아보면 힘들고 고달팠던 기억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겨레신문' 창간 이후 해직선배들이 대부분 한겨레로 자리를 옮기신 이후 텅빈 민언련을 부둥켜안고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말'지를 둘러싸고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시민운동이 세를 확장하면서 '가난한 민언련의 규율'이 무너졌던 순간들은 지금 돌아 보아도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민언련은 작고 힘없는 언론운동단체입니다. 그러나 이름없이 빛도 없이 민언련을 후원해주는 1400여 회원들이 있기에 열심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 속에 두 번의 개혁정부가 들어선 이후 개혁진보운동의 전선이 대단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개혁운동과 안티조선운동은 개혁과 민주화 그리고 통일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곳곳히 언론인 - 재야언론운동가의 외길을 걸으셨던 송건호회장님처럼 민언련도 소처럼 묵묵히 언론운동의 외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송건호언론상'으로 용기 주심에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